

2023년 12-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12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세계화 후퇴와 물가 기조 전환 가능성 [자본시장연구원 (2023년 1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금리 동결 기조 유지

- 미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에서 동결하고, 2024년에는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
- 일본은 10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일본은행(BOJ)은 물가 상승에도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유로존 역시 10월 실물지표들의 약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이 현 금리 수준을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는 미온적
- 중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투입과 대출 지원 확대를 공표하면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 및 유지
- 달러화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와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위험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가 지속
-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 등으로 배럴당 70달러선을 일시 하회하고, 美 정부의 전략 비축유 매입과 홍해發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등으로 상승 전환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6%, 소비·투자 감소 전환

-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전월비 -3.5%)되고,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0.9%)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1.6%)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3.1%)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비 0.8%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4.1%)와 운송장비(-1.2%)가 감소하면서 3.3% 감소

□ 금융 : 11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동반 둔화, 12월 중순(12월 11일 ~ 22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 영향에도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속에 국내외 물가 상승세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FOMC 회의 경계감 등으로 상승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 및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2%, 서비스업생산 +0.8%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고, 반도체와 1차금속,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1.2%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둔화되고, 경공업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8% 증가

□ 고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 11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4개월 만에 하락(1.2% → 1.0%)

□ 수출입 : 11월 수출 +7.7%, 수입 -11.6%,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이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컴퓨터·철강·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만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 등 선진권 시장을 비롯해서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권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11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연준 2024년 3차례 금리인하 예상

○ 11월 생산과 소비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약세와 선행지수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약세를 시사.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5.25~5.5%)를 동결(3연속)하면서도 2024년중 3차례 금리인하를 예상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전월비 -0.4%) 부문의 감소에도 광업(0.3%)과 제조업(0.3%)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과 달리 증가(0.2%)하고, 소매판매도 식당·주류(1.6%)와 자동차·부품(0.5%) 등의 판매 증가로 소폭 증가 전환(0.3%)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재고 증가 및 생산·고용 감소 등으로 전월 수준(46.7)에서 보합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38.2) 보합에도 미래 기대지수(77.8) 상승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상승
-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약간 확대(10월 15만 개 → 11월 19만 개)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하락
-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으로 동결하고, 2024년 말 금리를 4.5~4.75%로 전망하면서 3차례 금리인하 예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8	1.9	2.2 (1.7)	2.1 (2.4)	4.9 (2.9)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1 (-0.9)	0.2 (6.2)	0.5 (5.0)	0.0 (1.2)	0.1 (1.2)	-0.9 (1.7)	0.2 (1.7)
내구재수주	18.4	8.3	-0.1	5.4	-1.1	-0.1	4.0	-5.4	-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7	0.8	-0.2	0.3
소비자물가	4.7	8.0	0.9	0.7	0.9	0.6	0.4	0.0	0.1
실업률(%)	5.4	3.6	3.5	3.6	3.7	3.8	3.8	3.9	3.7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01.8	-203.8	-184.7	-58.6	-61.2	-64.3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7.1	46.7	47.7	47.6	49.0	46.7	46.7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5	105.4	109.0	108.7	104.3	99.1	102.0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09.4	106.7	105.2	105.3	104.5	103.5	103.0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0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물가 상승에도 금융완화 유지

- 10월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전월보다 확대되고,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 일본은행(BOJ)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도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을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1.8	-0.7	0.5	1.3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1.1	-0.5	1.4	0.7
소매판매	2.0	2.6	2.5	0.5	2.5	2.2	0.2	0.4	-1.7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4	0.2	0.3	0.7
실업률(%)	2.8	2.6	2.6	2.6	2.7	2.7	2.7	2.6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42	-64	-943	65	-661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08.3	108.8	109.1	108.4	109.5	109.3	108.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1월 내수 확대·수출 증가, 中 인민은행 유동성·대출 확대 지원

- 11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고, 수출이 7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하락세.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266조원) 투입과 대출 확대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기준금리(LPR 1년 만기 3.45%)를 4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정책에는 다소 신중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4.5	4.5	4.6	6.6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3.8	3.1	3.2	3.1	2.9	2.9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4.6	5.5	7.6	10.1
소비자물가	0.9	2.0	1.3	0.1	-0.1	0.1	0.0	-0.2	-0.5
수출(달러화기준)	29.6	5.6	-1.9	-4.8	-9.9	-8.5	-6.8	-6.6	0.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0월 실물지표 약세,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2연속 동결

- 10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밑으로 하락.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4.5%)에서 동결(2연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온적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1	-1.4	-1.3	-1.3	-1.3	0.6	-1.0	-0.7
소매판매	5.1	0.9	-0.1	-0.1	-0.4	-0.1	-0.7	-0.1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3	5.2	4.3	2.9
무역수지(10억유로)	97.7	-340.8	-6.8	1.4	23.3	3.6	11.0	8.7	10.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9.2	96.9	93.9	94.6	93.7	93.4	93.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지속 & 유가 상승 전환

- 달러화는 12월 들어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소폭의 강세를 보인 이후,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와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위험 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 유가는 12월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과 중국 및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 등으로 배럴당 70달러선을 일시 하회한 이후에, 美 정부의 전략 비축유 매입과 홍해發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단기 하락 경계감 등으로 상승 전환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22일
엔/달러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2.35
달러/유로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08
미 국채 (10년만기)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90
WTI유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3.3
두바이유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8.1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6%, 소비·투자 감소 전환

○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전월비 -3.5%)되고,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0.9%)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1.6%)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3.2%) 생산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와 기계장비(-8.3%) 등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3.5%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3.3%)와 운수·창고(-1.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비 0.9%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2* (-2.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3.8* (2.1*)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8* (1.1*)	-1.4 (-0.8)	1.2 (1.9)	2.7* (1.0*)	1.0* (-1.6*)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1* (1.8*)	-8.1 (-2.0)	-0.8 (5.2)	2.9* (1.7*)	1.1* (-3.5*)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2* (1.8*)	-8.3 (-2.2)	-0.8 (5.3)	2.9* (1.9*)	1.2* (-3.5*)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7*)	1.9 (0.3)	1.6 (0.2)	2.1* (0.5*)	0.8* (-0.9*)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8* (-2.6*)	-1.7 (-3.2)	-4.7 (-0.3)	-2.0* (0.1*)	-4.4* (-0.8*)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5* (-3.5*)	-11.2 (-8.9)	-14.6 (4.1)	-5.6* (8.7*)	-9.7* (-3.3*)
건설기성(불변)	-6.7	2.7	11.5 (4.6)	8.9 (-0.8)	10.5* (1.0*)	10.2 (0.5)	10.0 (2.5)	11.3* (0.2*)	4.1* (0.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110.0*	110.0	110.0*	110.0*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99.4*	99.6	99.4*	99.2*	99.1*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111.5*	111.1	111.4*	111.9*	112.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99.3*	99.3	99.3*	99.4*	99.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4.3%)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0%) 판매가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전월비 기준 감소 전환(0.1% → -0.8%)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1%)와 운송장비(-1.2%) 모두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3.3%)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0%) 공사 실적의 부진에도 건축(1.3%) 공사 실적의 호조에 증가세가 지속(0.7%)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0.4%)

□ 물가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0.6%

- 11월 소비자물가는 음식·숙박(전월비 0.2%) 등 소수 부문에서 상승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2.6%), 교통(-1.8%),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하락(2022년 11월 이후 처음 하락)
- 1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하락세(전월비 -5.5% → -2.7%)가 이어진 데다, 공산품 가격도 하락(0.0% → -0.7%)하고, 서비스 가격 역시 전월 수준(0.0%)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전월비 -0.4%, 전년동월비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2.7 (0.0)	2.3 (0.1)	3.4 (1.0)	3.7 (0.6)	3.8 (0.3)	3.3 (-0.6)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1 (0.2)	3.9 (-0.1)	3.9 (0.2)	3.8 (0.3)	3.6 (0.4)	3.3 (0.0)
생산자물가	6.4	8.4	4.4 (0.1)	0.6 (-0.3)	0.7 (0.7)	-0.3 (-0.2)	-0.3 (0.3)	1.0 (0.9)	1.4 (0.5)	0.7 (-0.1)	0.6* (-0.4*)
근원물가	6.0	6.4	2.6 (0.3)	0.3 (0.1)	0.3 (0.1)	-0.4 (-0.3)	-0.4 (0.0)	0.5 (0.5)	0.8 (0.2)	0.7 (0.1)	0.6*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1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동반 둔화

- 지난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폭 확대된 영향에도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10월 +8.1조원 → 11월 +7.3조원, 대기업 +1.5조원, 중소기업 +5.8조원)
 - 대기업 대출은 전월과 달리 운전자금 수요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
 -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특히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회사채는 계절적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10월 -2.3조원 → 11월 -0.9조원)
- CP·단기사채도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과 달리 순상환 전환
(2023년 10월 +2.5조원 → 11월 -2.1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상당폭 확대
(2023년 10월 +0.6조원 → 11월 +3.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1월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은행 원화대출	92.1	9.2	114.1	10.5	83.4	11.3	8.1	7.3	1,253.7
(대 기업)	9.0	2.8	43.6	6.5	34.0	4.9	4.3	1.5	249.8
(중소기업)	83.1	6.4	70.5	4.0	49.4	6.4	3.8	5.8	1003.8
<개인사업자>	35.9	2.7	20.5	0.3	8.5	0.8	0.5	0.9	451.2
■회사채 순발행	16.9	-0.2	-6.5	-1.1	-1.2	-0.8	-2.3	-0.9	..
■CP 순발행	7.2	0.7	22.0	3.3	3.5	2.0	2.5	-2.1	60.1
■주식발행	28.3	2.3	21.2	0.6	10.5	2.9	0.6	3.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1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에,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소폭 감소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10월 +6.7조원 → 11월 +5.4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자금수요 둔화에도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른 잔금수요 확대로 인해 전월 수준의 증가 규모를 유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0월 +5.7조원 → 11월 +5.8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전월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소멸되면서 소폭 감소 전환
(2023년 10월 +1.0조원 → 11월 -0.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1월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72.0	2.9	-2.9	-1.0	33.9	4.8	6.7	5.4	1,091.9
▪주택담보대출	54.9	2.4	16.9	1.0	46.5	6.1	5.7	5.8	845.3
▪기타대출	16.9	0.5	-20.0	-2.1	-12.4	-1.3	1.0	-0.3	245.4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2월 중순(12월 11일 ~ 22일) 금리 및 원/달러 하락세

- 국고채(3년) 금리는 12월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외인의 국채 선물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외 물가 상승세 둔화 및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美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
(12월 11일 3.480% → 12월 22일 3.234%, -0.25%p)
- 원/달러 환율은 12월 초에 연준의 FOMC 회의 경계감과 중국경제 둔화 우려감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인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 및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하락
(12월 11일 1,306.8원 → 12월 22일 1,303.0원, -3.8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2/4	3/4	4/4	1/4	2/4	3/4	11월	12.22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3.58	3.23
회사채(3년,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4.32	3.97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4	3.83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6	4.32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90.0	1,303.0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877.3	917.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1.2%, 전월비 -3.5%

○ 제조업생산이 기계장비(-13.3%), 섬유제품(-5.4), 전자부품(-3.3%)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14.7%)와 1차금속(17.3%), 기타운송장비(9.1%), 자동차(2.8%)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1.2% 증가(2개월 연속 증가세)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7.8%)과 중공업(2.2%)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반면, 경공업(-4.3%)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3.2%)와 1차금속(4.0%), 전자부품(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 기계장비(-8.3%), 기타운송장비(-5.2), 화학제품(-1.2%), 섬유제품(-4.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5%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7)는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4% 상승(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월과 달리 8.4%p 상승 전환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0월중 재고 증가폭(8.3% → 8.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 전환(2.7% → -1.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2개월 연속 하락세(3개월 만에 최저치)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0.8%, 전월비 -0.9%

○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3.7%), 숙박·음식점(-5.2%), 정보통신(-0.3%)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운수·창고(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2.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3%)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0.8%)

- 전월비로는 정보통신(1.3%)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0%)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3.3%), 운수·창고(-1.4%), 숙박·음식점(-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0.7%) 등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0.9% 감소 전환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0.5%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4.2%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99.5	104.6	106.1	105.6	108.9	107.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1	-0.8	2.9	1.1	-3.5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98.8	105.2	106.4	105.7	109.6	107.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2	-0.8	2.9	1.2	-3.5
섬 유	113.4	2.0	-3.5	-7.8	-9.1	-6.9	-6.0	-4.5	-5.4	-4.3
화 학	854.2	8.6	-9.9	-20.4	-16.1	-3.2	-2.6	0.8	-0.1	-1.2
철 강	496.6	5.2	-8.5	-6.5	-2.6	3.4	-0.5	21.1	26.3	4.9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8.4	23.6	14.7	-11.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3	-8.8	8.3	7.6	3.1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0.7	-18.4	-22.2	0.4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4.3	-13.9	-14.6	-14.0	-14.2	-13.2	-5.2
기계, 장비	737.3	12.1	1.1	0.7	-6.5	-12.8	-13.8	-9.7	-13.3	-8.3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8.2	0.0	2.8	3.2
조 선	66.0	-7.2	20.7	19.6	4.6	9.3	12.5	9.7	-4.1	-6.7
- 중 공 업	-	9.9	1.5	-10.7	-7.7	-1.6	0.1	4.0	2.2	-3.6
- 경 공 업	-	1.3	0.4	-5.6	-8.3	-5.9	-6.0	-3.8	-4.3	-2.5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3	12.2	7.8	-7.2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1.8	115.2	114.6	113.9	115.6	114.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6.4	2.3	1.9	1.6	2.1	0.8	-0.9
도소매	193.9	4.3	2.7	2.8	-1.1	-1.9	-3.5	-0.3	-3.7	-3.3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3	9.5	8.7	8.0	10.3	6.6	-1.4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16.3	-2.7	-4.7	-5.0	-1.3	-5.2	-2.3
정보통신	88.9	12.2	1.7	-1.7	-3.8	-1.7	-1.3	-3.6	-0.3	1.3
금융및보험	167.4	8.0	8.4	10.7	7.1	4.7	5.4	1.7	1.5	-1.2
부동산	38.7	2.3	8.0	4.1	3.0	2.4	2.1	2.2	-1.3	-3.0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1.8	2.6	2.4	1.4	2.5	2.8	-0.7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5.6	3.5	3.4	3.1	4.0	3.3	0.0
교 육	73.5	1.5	1.2	1.1	0.2	1.3	0.7	1.9	1.0	0.0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7	3.5	5.1	5.7	5.7	5.6	0.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0.8	7.0	-2.1	-0.7	4.4	1.8	4.2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13.8	5.4	5.4	7.3	3.1	2.6	2.6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0.6	-1.6	-0.9	1.0	-1.0	-2.3	-1.3
- ICT서비스업	-	6.2	5.5	2.2	0.8	1.8	2.1	0.8	0.5	-4.2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1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 11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4개월 만에 하락(1.2% → 1.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0.3%)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1.0% → -0.1%)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둔화(1.8% → 1.3%)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확대(0.6% → 1.5%)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1.1%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9% → 6.8%)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업(7.6% → 5.4%)을 비롯해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7% → 3.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8% → 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6% → 1.9%)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세(1.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산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686	28,678	28,698	28,764	28,698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0.7	0.9	1.1	1.2	1.0
농림·어업	0.9	4.6	-1.6	-0.3	-1.3	-2.5	-1.1	-0.2	1.0	-0.1
제조업	-0.2	3.1	-0.8	-1.1	-1.3	-0.8	-1.5	-1.6	-1.7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3	1.6	1.7	1.8	1.3
건설업	3.7	1.6	-1.0	-2.4	-0.1	-2.0	0.0	1.7	0.6	1.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3	0.9	0.9	1.1	0.3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0.5	1.0	2.0	3.6	3.1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9	2.8	2.2	2.2	2.4	2.0	1.8	1.2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8	2.4	2.6	2.5	2.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 7.7% 증가, 수입 11.6% 감소,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이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컴퓨터·철강·석유제품 등의 수출만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 등 선진권 시장을 비롯해서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권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수입은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상당폭 감소(-22.2%)하면서 감소폭이 확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94.2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5%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2.7%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2 (-12.8)	1,558 (-12.0)	1,572 (-9.7)	505 (-16.2)	520 (-8.1)	547 (-4.4)	550 (5.0)	558 (7.7)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7 (-21.6)	487 (-25.3)	510 (-22.8)	510 (-16.5)	534 (-9.7)	520 (-11.6)
무역수지	293	-478	-228	-35	65	18	10	37	16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대 품목중 철강·석유제품·컴퓨터 등 제외한 10개 품목 수출 증가

○ 반도체 : IT관련 업종(PC·모바일·서버)에서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와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반도체 수요의 소폭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 시현

- **자동차** : 북미·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한 고부가가치 차량 수요 증가와 친환경차 중심의 출고 지연 해소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6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 내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고단가로 인한 국내 수주의 소폭 감소세 속에 지난 '21년도에 수주 받은 선박 물량의 생산·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이 LCD 생산을 지속 감축하고 있으나, IT제품 및 자동차 등 신시장 분야의 성장 지속, 스마트폰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부품 수요의 동반 증가와 신형(아이폰15) 모델 출시 이후의 견조한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
- **철강** :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건설 및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약세와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
- **섬유** : 대형 유통사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신규 오더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편직물·저용점섬유 등 소재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로 초과수요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시장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석유화학** :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설비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주요국들의 견조한 소비수요 및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내 견조한 수요 증가세와 신흥시장(중남미·중동)에서의 산업기계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연말 프로모션을 위한 수요 증가와 전년 동기간 주요 시장의 매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위축에 따른 SSD 수요 감소와 글로벌 수요 약세 및 낸드 공급 과잉으로 수출이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1	15.0	28.7	9.4	19.7	21.5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0.5	5.9	-3.5	-3.8	3.8
선박류	16.4	-20.9	0.7	21.7	-4.0	-30.9	35.1	14.4	101.8	38.4
일반기계	4.6	2.0	-2.0	5.6	6.7	2.8	7.6	9.9	10.4	14.0
철강	36.9	5.7	-15.8	-5.7	-5.5	-10.2	-11.3	7.3	-0.8	-11.1
석유화학	54.8	-1.4	-22.4	-24.3	-13.8	-23.8	-11.4	-5.0	-3.4	5.8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4	-39.3	-32.6	-6.4	16.7	-4.5
섬유	14.0	-4.0	-15.2	-11.2	-11.8	-15.7	-10.9	-8.5	-9.0	0.9
가전	24.0	-7.4	-8.5	-7.5	7.1	2.4	11.7	7.8	5.7	14.1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4	-15.4	-8.6	-3.6	-4.5	8.4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33.4	-54.7	-53.9	-30.6	-29.4
반도체	29.0	1.0	-40.1	-34.8	-22.6	-33.6	-20.6	-13.6	-3.1	12.9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4.6	4.1	4.0	15.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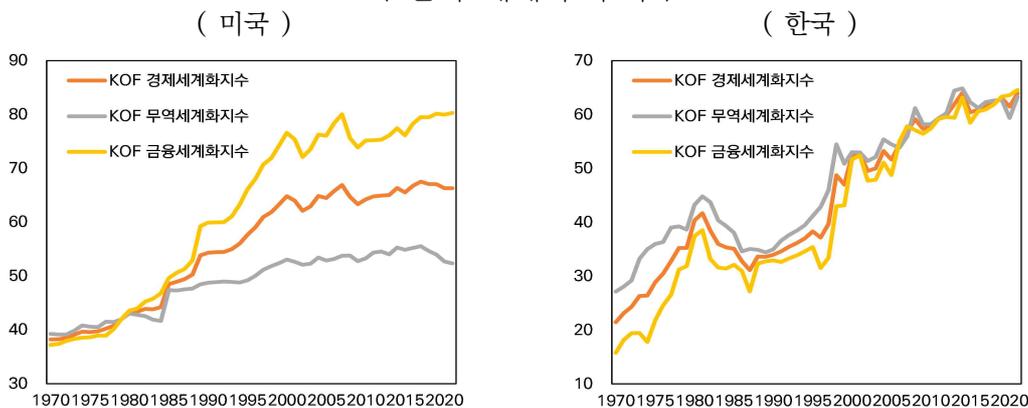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세계화 후퇴와 물가 기조 전환 가능성
-----------	-----------------------------

자본시장연구원(2023년 11월)

-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폭 완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과거 저물가 시대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불확실성이 존재
- **추세 인플레이션과 저물가 기조**
 - 추세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능력을 감안한 균형 물가상승률로써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 물가상승률의 장기 추세로 정의 가능
 - 80년대 초·중반에 급격히 하락한 미국의 추세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 팬데믹 이후 상승세로 전환
 -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도 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한·미 모두 추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 90년 전후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
- **세계화 후퇴와 저물가 기조 변화**
 - 한국과 미국 모두 90년대 들어 초세계화 국면에 진입한 모습을 시현
 -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정체 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화가 꾸준히 진전된 모습이 나타남.

〈 한미 세계화 추이 〉



자료 : 스위스 KOF 경제연구소.
 주 :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자료.

- 세계화가 후퇴하는 경우에 저물가 시대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
 - 전자의 견해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영향으로 이번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저물가 기조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의 견해는 중앙은행들

의 성공적인 물가 관리로 기초적 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세계화와 인플레이션 간 관계에 대한 학계 의견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
 - 전자(긍정론)는 세계화가 구조적 비용 하락과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의 경로를 통해서 저물가 기조에 기여한다고 보는 반면에, 후자(부정론)는 세계화가 일시적으로 통화적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

□ 세계화와 추세 인플레이션의 관계

- 근원 CPI의 추세 인플레이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 세계화가 기초적인 저물가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지난 90년대를 중심으로 한 초세계화 기간에 미국과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은 대부분 세계화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추정
 - 초세계화 기간(1990~2003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은 각각 3.7%p, 2.9%p 낮아졌는데, 이중 1.8%p 및 1.6%p가 세계화 효과

〈 세계화가 근원 CPI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친 영향 〉
(미국) (한국)

(단위: %p)	추세 인플레이션 변화	세계화 기여분	(단위: %p)	추세 인플레이션 변화	세계화 기여분
1981~1986년	-5.0	-0.8	1992~2003년	-2.9	-1.6
1986~1990년	-1.3	-1.2	2003~2008년	0.9	-0.5
1990~2003년	-3.7	-1.8	2008~2009년	-1.3	-0.2
2003~2008년	0.7	-0.6	2009~2013년	-0.8	-0.1
2008~2009년	-0.4	0.3	2013~2020년	-1.0	-0.1
2009~2020년	1.2	-0.4			

자료 : 스위스 KOF 경제연구소.

주 1) 추세 인플레이션 변화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폭.

2) 세계화 기여분은 해당 기간 동안의 세계화 변화로 인한 추세 인플레이션 변화.

□ 결론 및 시사점

- 세계화는 비용 효율성과 경쟁 심화 경로를 통해서 저물가 기조에 기여해 왔으나, 안정성과 복원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한계
 - 9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술혁신과 자유무역체제 도입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초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등 세계화 효과의 전제조건인 제도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 후퇴는 과거 저물가 기조 종료 가능성을 의미하며, 물가 기조 변화가 발생 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상황에 대비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25일)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2.26일)  11월 실업률	(12.27일)  11월 무역수지(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12.28일)  11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매판매(잠)  12월 기업경기실사수  11월 산업활동동향	(12.29일)  12월 소비자물가
(1.1일)  12월 수출입통계	(1.2일)	(1.3일)  12월 ISM 제조업지수	(1.4일)	(1.5일)  12월 소비자물가(예)  12월 ISM 서비스업지수  12월 고용보고서
(1.8일)  12월 경제제곱지수  11월 산업생산	(1.9일)  11월 무역수지	(1.10일)  12월 고용동향	(1.11일)  1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12월 소비자물가	(1.12일)  12월 소비자물가  12월 생산자물가 (1.13일)  12월 수출입통계
(1.15일)  11월 산업생산  11월 수출입통계	(1.16일)  11월 소매판매(수)	(1.17일)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23.4분기 실질GDP  12월 소비자물가(수)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18일)  11월 기계수주  11월 산업생산(수)	(1.19일)  12월 소비자물가  12월 생산자물가